

소 논문
『립반윙클의 신부』와 『오키나와의 눈물』로
바라본 일본 내 집단주의의 양상
- ‘야마토 민족’과 ‘류큐 민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 손지연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2015102879
오경현

< 목차 >

1. 서론. 일본의 집단주의 현상
2. 본론1. 일본의 집단주의 배경
 - 2.1. 일본의 지배계급의 일체화 논리와 천황제
 - 2.2. 히로히토 천황의 황국신민화정책과 가족(이에)제도
3. 본론2. 일본 내 집단주의 양상과 특성
 - 3.1. ‘립반윙클의 신부’로 바라본 ‘야마토 민족’의 집단주의 양상
 - 3.2. ‘오키나와의 눈물’로 바라본 ‘류큐 민족’의 집단주의 양상
 - 3.3. 두 양상 간의 차이에 근거한 일본의 집단주의 특성
4. 결론. 오늘 날 일본의 집단주의에 대한 고찰
 - 4.1. 일본 내 지배집단의 억압과 피지배집단의 소외 사(史)
 - 4.2. 우리나라의 집단주의와 그에 대한 성찰

참고 문헌

초록 본 연구는 오늘 날 일본 내 집단주의의 양상에 대한 연구이다. 보다 더 그 양상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일본 내 집단주의 배경, 천황제가 ‘야마토 민족’과 ‘류큐 민족’을 결속시키는 과정을 주목했다. 야마토 문학과 오키나와 문학을 결부하는 선행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필자는 ‘립반윙클의 신부’와 ‘오키나와의 눈물’로 그 두 민족의 집단주의에 대한 ‘수용’과 ‘반발’의 양상을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집단주의에 대한 성찰로 연구를 매듭지었다.

주제어 일본, 집단주의, 천황제, 야마토 민족, 류큐 민족, 수용, 반발

1. 서론. 일본의 집단주의 현상

‘집단주의’란 각 개인끼리 모여서 상호 협력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회학적 원리이다.¹⁾ 일본의 집단주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주일미국대사와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미국의 언어학자 에드윈 라이샤워는 일본인과 유럽인의 가장 현저한 차이로 ‘집단중시’를 꼽기도 했다. 먼저, 그 집단중시의 사례는 과거부터 오늘 날까지 ‘집단’을 중시하는 ‘언어’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 첫 번째는 ‘세켄[世間]’이다. 세켄이란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세상 일반의 시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말은 일본사회에서 타인을 비난하는 경우에 흔히 사용되기도 한다. 그 파생으로, ‘世間知らずの奴’(세상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험담이다. 이런 험담을 듣는 사람들은 일본사회에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세켄은 일본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양식으로부터 이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역사학자인 아베 킨야 교수는 이것을 서구에 없는 일본사회의 독자적인 생활 형태로 간주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개인’의 사상을 수용했지만 그 개념이 널리 퍼지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베 킨야 교수에 의하면 ‘society’라는 단어가 ‘사회’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이 1877년이고, ‘individual’이라는 단어가 ‘개인’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은 그 보다 더 늦은 1884년이었다. 이 세켄 외에도 ‘一億一心(일억명이 한마음이라는 일억일심)’, ‘出る杭は打たれる(모난 돌이 정 맞는다.)’ 등 수 많은 ‘집단중시’를 강조하는 ‘언어’가 있다.

이러한 일본 사회(집단)의 ‘개인’에 대한 보수적 시각으로 일본인(개인)은 다수에 의한 공통의 ‘가치판단’이나 그에 근거한 ‘관행’ 등에 의지하려 했고, 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 속에 자신의 행동을 규제할 수밖에 없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화가 일본의 군국주의를 낳았으며 결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만주, 류큐국, 동남아시아 지역, 오세아니아의 여러 섬까지 침략하고 정복하였다. 그리고 그 식민지의 원(原)주민들로 하여금 일본 천황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하는 ‘황민화정책’을 단행하였다. 근대의 일본은 정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타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함으로써 ‘야마토 민족’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집단을 꿈꿨던 것이다. 일본의 패망 이후, 다소 퇴색되거나 부침을 거듭해왔지만 오랜 역사를 거쳐 형성된 국민적 정서는 쉽게 변하지 않았다. 고도성장기, 버블의 붕괴, 잃어버린 20년을 거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변화 물결도 결국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정서인 일본의 정신에 미국 발 경영체계를 접목시키려는 현상일 뿐이다.

일본은 하나의 집단, 하나의 공동체로 과거 전국시대 때부터, 오늘 날 까지 굳건한 정신을 바탕으로 분열의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현대 일본사회의 눈부신 발전과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개인의 희생’이 있었다. 이 개인은 ‘재일한국인’ 뿐만 아니라 1879년 3월, 일본이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 무력으로 일본으로 병합했던 ‘류큐국’의 ‘류큐 민족’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본토의 ‘야마토 민족’과 ‘류큐 민족’의 집단주의에 대한 ‘수용’과 ‘반발’의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연구의 방법은 영화 ‘립반윙클의 신부’와 책 ‘오키나와의 눈물’을 두 민족의 ‘집단주의’ 양상으로 엮고 그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이다. 이 연구의 가치는 오늘 날, 군국주의의 대한 향수로 다시 극으로 치달고 있는 일본의 집단주의 양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배집단의 억압과 피지배집단의 소외를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그리고 세계의 문제로 사유가 나아갈 수 있는 데에 있다.

2. 본론1. 일본의 집단주의 배경

2.1. 일본의 지배계급의 일체화 논리와 천황제

일본의 천황제를 이해하는 것은 곧 일본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그 만큼 ‘천황’이라는 존재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역사, 사회, 문화 등 그 어디에도 빠질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일본의 지배체계, 통치의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기는 ‘정치권력’은 천황이 아닌 과거의 ‘귀족’, ‘무가’를 중심으로 한 막부 혹은 오늘 날의 ‘총리’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가장 아이러니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고대부터 일본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천황’이 국가를 직접적으로 통치 한 적은 고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메이지 헌법 제정 이후, 천황은 ‘헌법의

1) 임석진 외,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시행자'라고 명문화가 되었지만 '정치권력'은 여전히 '의원내각제'의 의원에게 있었다.²⁾ 그 마저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배로 1946년 11월 메이지 헌법의 개정안이 가결·공포되었고, 기존의 '헌법상' 주권이 '천황'으로부터 국민에게 이동했다. 즉, 실체적으로는 천황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천황은 국가의 상징, 곧 일본의 정체성으로 일본의 역사와 그 명을 늘 함께해 왔고 오늘 날에도 함께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이유로 수 많은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이 연구는 그 중 '지배계급의 일체화 논리'를 중점이라고 꼽았다. '지배계급'의 일체화 논리는 오늘 날 일본의 사회적 기반이라고 할 만큼, 일본에서 막강한 위력을 떨쳐왔다. 일본의 역사를 되돌아 보았을 때 내란이나 장기적인 내부혼란으로 인해 국가의 명운이 풍전등화로 치달을 만한 상황은 거의 없었다. 그 사례로, ①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사회로의 이행에 성공한 이후 일본사회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은 길어야 20년 안팎이었다. ②또한 봉건체제에서 근대국가로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룩하는 데도 기껏 20여 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 ③전후의 폐허로부터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는 데도 불과 10여 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④심지어 근대일본의 민중운동사에서 최대의 규모와 최고의 사상적 기반을 갖고 전제권력에 대항한 1884년의 치치부 민중봉기도 단 일주일 만에 진압되었다. ⑤마지막으로 무사들이 지배하던 전국시대에도, 어떤 외세(몽골)의 침략으로 극도의 내란으로 치달을 만한 혼란은 거의 없었다.³⁾

따라서 통합과 저항의 논리에서 항상 지배계급에 의한 통합의 논리가 승리하였고, 민중들에 의한 기존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 논리는 항상 국가의 탄압에 의해 쉽게 굴복되었다. 역사의 변화를 주도해온 계급은 언제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지배계급이었으며, 민중들은 그 변화에 일시적인 저항을 하다 결국은 국가권력이 발하는 지배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객체로 전략하는 존재에 불과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사회는 기본적으로 갈등과 대립은 있어도 기존의 것에 대한 파멸은 피해가는 사회적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확립하였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러한 대세의 흐름에 순응하고 적응하도록 역사적으로 교육 받아 왔다.

이 두 가지의 퍼즐을 맞췄을 때,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다. 일본의 실체적 지배계급은 단지, '천황'을 일본이 어떤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하나의 일본으로 뭉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의 수단으로서, 과거부터 오늘 날까지 철저하게 이용해 왔다는 것이다.

2.2. 히로히토 천황의 황국신민화정책과 가족(이에)제도

'상징천황제'의 구체적 수단으로서 '히로히토 천황의 황국신민화정책'과 가족(이에)제도가 있다. 만주사변 이후부터 일본 패망기까지 대륙침략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수행하였던 일본은 이 시기에, 가장 극도에 달하는 탄압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하기 위한 물자와 인력에 대한 수탈정책이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만주, 류큐국 등 식민지 국가의 정체성을 말살하여 아예 하나의 일본민족으로 통합하려는 민족말살정책이었다. 전국 곳곳에 신사를 설치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모든 행사에 앞서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하도록 강요하였고,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제하였다. 역사교육에서도 국사 대신 일본사를 가르쳤고, 육군지원병제도를 채택하여 식민지 국가의 징용자를 전쟁터로 끌어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은 천황폐하에 대한 충성만을 노래하고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미하는 천황친위대를 결속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1941년,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을 공격했으며, 완벽한 기습공격으로 일본군은 침공 후 약 5개월동안 최강으로 군림했다.⁴⁾

일본의 패전 직후의 국제여론은 히로히토 천황 및 천황제에 대해 극히 비판적이었다. 1945년 6월 미국에서 조사된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든 천황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달했고, 재판에 회부하여 유죄일 경우 처벌한다는 의견이 10%를 차지했다. 즉, 70%의 미국시민이 천황의 전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외에도, 중국에서도, 연합국 정부 및 국민들의 입장도, 천황은 전범의 상징이고 곧 천황제는 일본 군국주의의 기반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의 여론은 절대적으로 '천황제 존속'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1945년 12월 23일자 니혼주보에 의하면, 천황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95%에 달했다. 주목할 점은 미국정부조차도 종전과정에서 천황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다는

2) 김용안, 『키워드로 여는 일본의 향』, 제이앤씨, 2009.

3) 김필동, 『일본의 정체성 : 살림지식총서 186』, 2005.

4) 정토웅, 『세계전쟁사 다이제스트 100』, 2010.

것이다. 천황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수백만명이 희생되었는데도 천황의 위광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천황의 항복 명령을 받은 군대는 별다른 저항없이 무장해제에 응했다. 맥아더 장군이 “천황은 백만 명의 군대에 필적한다.”라고 미국정부에 보도했을 정도였다. 결국, 미국은 천황제를 폐지하는 것보다 이용하는 것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히로히토 천황의 전범에 대한 책임 여부이다. 2.1에서 언급했듯이, 당시의 정치적 책임은 ‘내각’에 있었기 때문에, 히로히토 천황은 전쟁의 최악으로부터 그의 충신들보다 어느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히로히토 천황에 대한 역사학자의 의견은 분분하다. 이에 대한 짧은 의견으로, 비록 정치적 책임은 ‘내각’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히로히토 천황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내각은 군부(국방성, 육군성, 해군성)는 천황 직할의 기관이었기 때문에, 내각이 이를 장악하지 못했었다. 또한 당시 일본 천황의 권한을 살펴 봤을 때, 의회 해산권, 내각 임명권, 내각 해산권, 국군 통수권, 전쟁 선포권 등 정치권력에 버금가는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전통적 천황이 허수아비에 불과했을 지라도, 히로히토 천황의 경우 헌법을 초월한 극단적 집단주의, 극단적 군국주의로 부작용을 낳은 주범이고, 천황의 친위대로 수 많은 학살을 자행한 전범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을 중점으로 한 황국이 패망하고 반강제적으로 믿고 따랐던 신민은 고통스럽게 죽어갔음에도, 그 떨어지지 않은 위광이 그를 살린 것이다. 1946년 ‘신일본 건설에 관한 조서’를 통해 인간선언을 하고, 전범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일본의 천황제와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 된 백성이라는 ‘황국신민정책’은 가히 일본을 하나의 일본으로 통합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패전 이 후, 버블 경제와 그 붕괴 이 후, 잃어버린 20년 간 ‘천황제’는 이전 보다 그 영향력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대 일본의 ‘황국신민정책’ 영향력은 현대 일본의 ‘이예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예제도는 메이지 민법에서 채용한 가족제도로, 호주를 중심으로 그와 가까운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한 집에 속하게 하여 호주에게 이예의 통솔권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는 에도시대에 발달한 무사 계급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의 천황을 대가장으로 삼고 국민을 그의 신민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즉, 현대버전의 황국신민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날 일본의 사회적 통합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한번 더 ‘이예’의 개념을 확장해 해석할 수 있다. 그 해석은 한 개인의 ‘조상’ 개념을 천황가의 ‘신화적 조상’으로 수렴시켜, 국가적 규모의 장대한 하이어나키의 근본 원리로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⁵⁾ 즉,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 처럼,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집단주의의 원리와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본론2. 일본 내 집단주의 양상과 특성

3.1. ‘립반윙클의 신부’로 바라본 ‘야마토 민족’의 집단주의 양상

(줄거리)먼저, 이 영화는 ‘도쿄’를 배경으로 SNS ‘플래닛’이 자신의 전부인 ‘나나미’가 ‘립반윙클’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정체 모를 인물과 친구가 되면서 진짜 세상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이 영화의 주요한 갈등의 원인은 ‘일본 현대사회에 뿌리깊은 집단주의의 부작용’이다. 대표적 장면은 다음과 같다.

①중학교 기간제 교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온라인 과외 선생님인 나나미가 데이트 앱을 통해 ‘남자친구’ 츠루오카를 만나는 장면이다. 일본 현대사회는 보통인간의 신화로서, 이 시대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인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책임을 다할 것을 강요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세켄’이라는 단어로 알 수 있듯이, 나나미와 츠루오카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장을 갖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결혼 적령기 때 배우자를 찾았다. 가장 효율적으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말이다.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닌, 앱을 통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둘은 서로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혼적령기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성대한 결혼식을 치른다.

②이 과정에서 나나미는 학교에서 해고를 당한 사실도, 부모님이 이혼한 사실도, 결혼식의 하객이 거짓이었다는 사실도 주변의 사람에게 숨긴다. 이 또한 집단이 바라고 선망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행동이다.

③시어머니의 강요로 ‘일’을 그만두고, 가부장적 가정의 주부로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했지만 결국, 이러한 나나미의

5) 김선영, 「日本の集團主義의社會的基盤에 관한研究: ‘이예’(家)制度和 家族國家主義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거짓말을 모두 들통이나고 이혼을 당한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다. 이는 일본 현대사회가 ‘나나미의 본질적 성격이 어떻다 할지라도, 집단은 사회적 명분을 중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자비도 없음을 내포하고 있다.

④돈을 주는 어떤 일이든 하는 심부름꾼 ‘아무로’는 ‘집단의 이익, 수요’를 철저하게 수용하고 특화시킨 직업을 갖고 있다. 이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에 대한 윤리적 잣대, 도덕적 의무는 희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무로는 불행에 빠진 나나미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선하는 척 하지만, 사실 그 것마저도 ‘마시로’의 ‘동반자살 파트너’에 대한 수요를 충족한 공급일 뿐이다.

⑤이 영화에서 ‘마시로’는 AV배우의 직업을 갖고 있다. ‘AV배우’라는 직업과 그 직업을 ‘미천하게’ 묘사하는 주변인은 일본 집단주의의 이중성을 내포한다. 마시로의 어머니의 시선으로 알 수 있듯이, 일본이라는 집단의 보편적인 여성상은 ‘순결’하고 ‘순종’적인 여성상이다. 그러나, 일본의 성상품화와 성매매는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왕성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개적인 위치에서 성상품화와 성매매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로 간주하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질타하지만 정작 그들의 사적인 삶에 ‘성’상품은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④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대 일본사회의 ‘집단주의에 의한 도덕성은 절대적이어서는 아니지만, 그 사회적 상황과 욕망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⑥그리고 결말에 이르러, ‘마시로’는 ‘그 일은 나만이 할 수 있어, 나만이.’라고 말한다. 이는 마시로는 집단의 보이지 않는 강요에 대한 반발을 보인 부분이었다. 비록 ‘AV배우’라는 직업일지라도, 배우에 대한 꿈이 있던 마시로에게, 그 직업은 집단의 요구에 따른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었던 것이다. 마시로 자신만이 정체성을 담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는 비록 ‘소극적’ 반발일지라도, 어느정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으로 오늘 날 일본 현대사회를 정확하게 조명한다.

종합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립반윙클의 신부’는 일본 본토의 중심지 ‘도쿄’를 사는 인물들의 삶을 그렸다. 작품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집단주의의 기준’을 곧 자신의 삶의 잣대로 여기고, 이를 어떠한 비판없이 수용하고, 충족하기 위한 인물들의 삶을 묘사하는 게 압도적으로 크다.

3.2. ‘오키나와의 눈물’로 바라본 ‘류큐 민족’의 집단주의 양상

『오키나와의 눈물』은 오키나와의 고통과 차별을 이야기한 책이다. 일본 정부는 미일 안보체제의 부담을 오키나와에 강요했고, 군사훈련과 미군 병사에 의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오키나와 주민의 고통을 위로하지 않았다. 이 책의 저자는 1960년 오키나와현 나키진에서 태어나 류큐대학 법문학부 국문학과를 졸업한 메도루마 슌이다. 오키나와의 비극적인 역사를 일본 문단과 사회에서 이질적이고 독창적인 작가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와 동시에 역자는 안행순이다. 이 역자는 오키나와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동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책은 메도루마의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전쟁 체험에 대한 기록, 그리고 히토쓰바시 대학 교수와의 대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p39)“오키나와 봄’을 타고 산신을 연주하거나 전통춤인 에이사를 추는 아마톤츄(야마토 민족)가 늘고 있다. 그렇지만 오키나와인이 경험한 차별과 동화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들은 차별을 극복한 것이 아니다. 단지 모르는 것일 뿐. 오키나와를 매우 좋아하는 아마톤츄는 자기 마음에 드는 ‘오키나와’만을 즐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무시하고 넘어간다. 지금의 ‘오키나와 봄’은 아마톤츄에 의해 불편한 오키나와의 영락과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도 모른다.(중략)아마톤츄가 우리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다.”

②(p44)“지금 중국은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이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역사인식 문제는 거둬들여 과제로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침략을 당했던 아시아 당사국들은 일본이 침략과 가해의 역사를 반성하고 있는지 판단하려 들 것이며, 그 나라들을 완전히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일본은 아시아에서 고립되는 일만 남는다.”(중략) 야마토와는 다른 역사와 전쟁체험을 가진 오키나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오키나와는 일본과 그 밖의 아시아 각국과 사이에서 피차별과 차별, 전쟁의 피해와 가해의 이중성을 짊어지고 있다. 그 이중성의 실태를 검증하고 의미를 부여한 뒤, 오키나와만의 전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에세이는 이 작가의 다른 ‘오키나와인’에 대한 표상을 이해하는 데에 정석 내지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에세이에 근거한 ‘오키나와인’에 대한 분석은 그 표상의 본질적인 의미에 다가갈 수 있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메도루마는 ‘오키나와 봄’은 ‘오키나와와인’을 대변해 본토와 오키나와 사이의 역사는 외면하고, 이국적인 치유의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오늘 날 ‘오키나와인’은 ‘이러한 야마토 민족의 역사를 잊은 자행’에 관광산업을 중점적으로 한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오키나와인’은 지식인을 중심으로 오키나와 전투에서의 가해자성에도 과감하게 논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어의 ‘표준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오키나와인이 조선인으로 오인당하여 죽을 위기를 맞이했을 때 조선인을 동정하기 보다는 조선일들처럼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 빨리 ‘표준어’를 익혀 일본인이 되자는 강박이 앞섰던 윗세대의 역사를 소개한다.

종합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오키나와의 눈물’은 과거부터 오늘 날의 ‘류큐 민족(오키나와인)’의 ‘야마토 민족의 집단주의’에 대한 ‘수용’, ‘반발’ 양상을 서술했다. 과거에는, 황국신민화정책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비호 아래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류큐 민족’은 자의든, 타의든 그 흐름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 날에 이르러, ‘그 집단주의의 흐름’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개개인이 ‘반발’을 하고 있고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오키나와의 공산당’이 세력을 키우고 압박하는 것에 굴하지 않고 지식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야마토 민족’의 부당함을 경고하고, ‘과거의 과오’까지 조명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오늘 날 일본의 집단주의에 대한 고찰

4.1. 일본 내 지배집단의 억압과 피지배집단의 소외 사(史)

두 양상 간의 비교로 처음의 ‘집단주의’에 대한 수용은 어렸을 때부터의 ‘세뇌’ 등으로 강제적이고 비민주적일 수 있지만, 그 수용 이후의 ‘집단주의’에 대한 비판, 반성, 반발은 ‘개인의 선택’의 범주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을 습득할 때 인간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혹은 굳게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확증평향으로 더욱 더 확고해져, ‘가치관’으로 정립한다. 두 민족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위험한 시도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야마토 민족’보다 ‘류큐 민족’이 일본에 합병되어 시간이 흐른 오늘 날까지 좀 더 ‘이러한 집단중시 흐름’에 민감하고 비판적인 보일 수 있는 것은 ‘류큐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이 오늘 날까지 살아 숨쉬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지배집단, 피지배집단의 상하위 관계에서, 오늘 날 ‘야마토 민족’의 개개인은 그 지배집단에 속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데에 획일화되어 있고, 몰두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류큐 민족’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 전쟁의 고통,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역사는 지배집단의 억압과 피지배집단의 소외使였음을 결론지을 수 있었다. 그 지배집단은 민중이 아닌 특정 계층에 의해 오랜 시간동안 유지되어 왔다. 지배집단은 ‘황국신민화정책’, 그리고 오늘 날의 ‘이예제도’를 수단으로 그 ‘지배집단의 위기’를 ‘전 일본 사회의 위기’로 포장해, 통제하고 기득권을 지켜왔다. 그리고 지배집단은 오늘 날까지 과거는 왜곡하고, 외면한 채로 하나의 일본, 하나의 국가를 강조하는 집단중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 많은 피지배집단의 최소한의 자유, 행복할 권리는 여전히 짓밟히고 있다.

‘재일조선인’, ‘류큐 민족’을 포함한 ‘일본 내 소수집단’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소수집단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응 또한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4.2. 우리나라의 집단주의와 그에 대한 성찰

오늘 날 우리나라 또한 집단주의에 대한 수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난민 문제가 그렇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이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문제에는 난민에 대한 선입견, 오해와 함께 남성과 여성의 대립, 기업가와 노동자와의 대립 등 수 많은 집단의 문제가 얽혀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게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신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은 곧, 앞으로 언젠든 제4공화국 신화에 버금가는 그 어떤 집단의 성공 신화가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대비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언제나, 항상 우위에 있을 수 없다. 단지, 상호 간의 합리적인 타협과 양보만이 있을 뿐이다. 집단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순간, 그 것은 모든 집단의 파멸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또한 지난 ‘베트남 전쟁’과 같은 역사의 과오를 상기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현재,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베트남 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베트남 전쟁에서의 학살을 반성하고, 용서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곧, 국제사회와 일본에 던지는 또 다른, 강력한 메세지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토의, 토론을 접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정치적 정파 싸움에 너무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루하루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토의, 토론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한국의 실질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고 국제적 위상을 다질 수 있는 '지배집단'의 결단이 필요해 보이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김용안, 『키워드론 여는 일본의 향』, 제이앤씨, 2009.
김필동, 『일본의 정체성 : 살림지식총서 186』, 2005.
임석진 외,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정토웅, 『세계전쟁사 다이제스트 100』, 2010.
가와미츠 신이치, 이지원 옮김, 『오키나와에서 말한다』, 이담북스, 2014.
메도루마 슌, 안행순 옮김, 『오키나와의 눈물』, 논형, 2013.
아라사키 모리테루, 정영신 옮김, 『오키나와 이야기』, 역사비평사, 2016.
이와이 슌지, 박재영 옮김, 『립반윙클의 신부』, 알에이치코리아, 2016.
호카마 슈젠, 심우성 옮김,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 동문선, 2008.

학위 논문

- 김선영, 「日本の 集團主義의 社會的 基盤에 관한 研究 : '이에'(家)制度和 家族國家主義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김경아, 「오키나와 현대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안행순, 「오키나와 '전후' 제로년」,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임경택,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탁재형, 「일본천황제와 정치의식 : 천황권력의 본질과 정치적 이용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신문

- 최재봉, 「"제주에서 오키나와 역사와 문학을 말한다"」, 『한겨레』, 2018년 5월 3일.
권민수, 「"오키나와의 눈물 히메우리 전장 속에 사라진 십대 소녀들의 죽음"」, 『nsp통신』, 2018년 11월 5일

기타

그림 1) 1938년 유치원(출처:렌즈로 본 세상만사)

